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 전동평 영암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 ‘글로벌경영대상’ 수상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경영대상'을 수상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CEO 대상은 기관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으로 각자 맡은바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대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전동평 군수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군민과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신념으로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를 힘차게 이끌어 가고 있으며, 3대 군정철학을 모토로 현장·확실행정, 서비스행정, 섬김행정을 실천하며, 365일 이동 군

수실을 만들어 군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6만군민과 16만항우, 1천여 공직자의 대통합 시대를 활짝 열어 가면서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둬오며 일 잘하고 부지런한 군수로 평점이 나 있다.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의 눈부신 성과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했으며, 복지분야 평가에서 대통령상 등 2관왕 차지, 2018 영암 방문의 해 선언으로 3백만명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여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었으며, 郡 역사상 최초로 개최한 제57회 전남제전의 완벽한 대회 운영과 종합우승까지 차지해 2백만 도민의 찬사를 받았다.

전동평 군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위대한 6만 영암군민과 16만 항우, 1천여 공직자가 함께 만든 상"이라며,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일등영암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완도군, 어린이 건강·안전관리 힘써

### 공기청정기 118대·어린이집 차량 하자 확인 장치 설치



완도군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118대를 1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전 차량에 '어린이 하자 확인 장치'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신체 기능이 온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 노출에 취약하다.

이에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각별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마다 미세먼지 전파 담당자를 지정하여 환경부 대기환경정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

로 진행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 요령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등·하원 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도록 확인이 가능한 '어린이 하자 확인 장치'를 지난 해 12월 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전체에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하자 확인 장치'는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 후 벨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으며, 벨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린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차량 하자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아동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여수시, 초등생 충치예방 '팔 걷어'...불소도포 무료 시행

여수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치예방 '불소바니쉬 도포 시술'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소바니쉬 도포는 고농도 불소를 치아 표면에 직접 바르는 시술이며, 충치예방 효과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생 40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시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은 신청 학교에 한해 시행하며, 치과 의사, 치위생사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또 올바른 칫솔질 방법, 불소의 역할 등 구강보건교육을 병행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서부터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구강건

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6세 이상 노인 무료 불소도포·스케일링, 만 5세 이상 시민 구강검사와 무료 불소도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담양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 담양다움이 담긴 사진...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담양군이 천년담양의 품격과 '담양다움'을 특색 있게 잘 표현한 사진을 담양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홍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담양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2018

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기간 중 담양의 관광명소 및 자연경관 등 담양을 배경으로 담양의 품격과 역사가 깃든 '담양다움'을 잘 표현한 사진이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damyang.go.kr/>)를 통

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11월 말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입선 10만원을 수여한다.

입상작은 담양 관광홍보물 제작 및 각종 행사에 활용되며 군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시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친환경농업분야 22개 사업 확정

곡성군은 지난 6일 군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및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사 분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9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회의에는 친환경 농업인 곡성군 연합회장, 한국 쌀전업농 곡성군 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5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 농업 분야 15개 사업의 4억 1300만원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과 2020년 농림축산

식품자율사업 7개 사업 10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다.

올해 곡성군은 유기농 확대를 통한 인종 내실화와 인종품목 다양화를 친환경 농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친환경 인종 품목을 채소, 과수, 임산물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친환경 인증의 80% 이상이 비에 집중되어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화순군,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 관광지 벤치마킹 통한 해설사 역량 강화 기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13명이 문화관광 벤치마킹과 역량 강화를 위해 팸투어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데 필요한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부인의 적벽강,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 등 전북지역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며 관광 마인드를 기르고 전북 지역 해설사들의 해설 기법을 벤치마킹했다.

민미옥 화순 해설사협회 회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적벽·고인돌 유적지 등 우리 군과 유사한 관광 명소 방문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광 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내 관광지 홍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해설사들의 역량 강화와 관광 홍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무안군, 양파 노균병 대한 철저한 방제 당부

무안군은 현경면, 운남면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노균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파 노균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노균병은 양파 잎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며,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해충으로 노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전적으로 퍼져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노균병은 주로 가을철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여 잠복해 있거나, 본밭에 옮겨심은 후 토양에 잔재해 있던 병원균이 바람이나 강우 등으로 잎 표면에 붙으면서 발생한다.

또한, 병 발생시기가 빠를수록 피해가 심해지는 데, 1차 감염 포기에서 발생한 포자가 바람에 의해서 건전한 포기로 이동하면서 2차적으로 병이 확산된다. 초기에 병이 발생하면 포기는 가능하면 일찍 뽑아서 땅에 파묻거나 먼 곳에 버리는 것이 좋으며 병이 관측된 시기부터는 체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